

|오늘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_ 엡 2:8-9

통 권 제 262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4월 18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손꼽아 기다려지는 늘푸른 대학

_ 현대사회의 새로운 노년의 안식처로 자리잡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16:31)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잠언 20:29)

본 교회는 지난 4월부터 늘푸른 대학을
개강하여 1년동안 말씀을 통한 교제와 건

강증진 및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늘푸른 대학은 1부, 2
부, 3부로 나뉘는데 1부에서는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
린다. 2부에서 삶의 지혜가 되는 강의,
3부에서는 모임별로 특별활동을 한다.
지난 6회 강의에서는 2부 때 <노후재산
관리와 상속, 절세>라는 주제로 이임희

삼성생명 FT강의가 있었는데 많은 학생
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늘푸른 대학의 고효성 학생회장은 "매
회 참석인원이 120명 정도이며 교회에서
제공한 점심을 먹고 3부 취미생활은 정
말 노년에 지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행복하다. 늘
푸른대학은 점점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

는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중요한 축을 담
당하게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희 집
사는 "젊게 살 수 있고, 교제를 통한 신앙
생활이 상속되어 매주 화요일이 손꼽아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태원 편집장>

로 뎀 나 무



| 서로에게 |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4:32)

그 사람은 잊었는데

나는 잊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나의 장부에는

내가 받을 빚만 적혀 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한다.

내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생각한다.

내가 갚아야 할 빚도 있다는 것을.

아니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외상값이 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실랑이를 하지 말자.

누가 더 갚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나와 너의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다.

주님!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저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엄혜숙 기자>

주차스티커 발급 받으세요!

4월부터 교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주일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 스티커는 1층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기재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지개축제

2면

간증/금주의 포커스/ 전화상담팀

3면

믿음의 어머니들/찬양연합수련회 외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어린이 무지개잔치

주님의 숲에 사는 행복한 어린이

2010 어린이 무지개잔치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소파 방정환선생의 주창으로 시작된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그보다 먼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어른의 미래이며, 우리 주님의교회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돌봄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 주님의교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주님의 숲에 사는 행복한 어린이' 라는 주제로 어린이 무지개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무지개잔치는 주님의교회 어린이는 물론 우리 교회가 머무는 지역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쉼터를 제공하는 잔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무지개잔치의 주인공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들" 중심에 맞추어 어린이가 어른과 함께 기쁘게 뛰어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잔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잔치에는 "놀거리"가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행사가 마치고 전까지 "바운스"를 포함한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먼저 온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는 "무지개 운동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즐거운 "미니게임"과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잔치에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솜사탕",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마련되어 즐거운 점심 식사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잔치에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신나게 몸으로 뛰는 뒤, 오후에는 온 가족이 대강당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송승환의 '난타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잔치가 온전히 준비되어 주님의 기쁨과 영광 되도록 또한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잔치에 초대되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어울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 무지개잔치 어린이선물 후원 광고

무지개잔치 진행팀에서는 잔치 당일 아이들에게 전달할 선물을 후원받고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주일 1층 로비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김성운집사 (010 - 9040 - 5170)



2010 무지개잔치

언 제: 5월 5일 수 (어린이날) 10:00~16:00

어디서: 정신여중고 운동장 및 대강당, 주변

누 구: 모든 어린이와 학부모

통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 <김향순 권사>

사순절 새벽통독 시간에 요일별 통독자가 필요하시다며 요청을 하시는 공광송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다. 양육클래스 성경통독반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지만 통독훈련 보다는 성경공부와 성경읽기, 성경필사 그리고 성경녹음의 과정으로서 매일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고 성경 읽기는 녹음을 한 차례 한 것 뿐 인데...

목사님의 부탁이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열떨떨한 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만 하였다. 그 주에 당장 통독할 분들이 모여서 목사님께 통독일정과 통독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회의를 한 결과 매일 밤10시에 모두 함께 중보기도 할 것과, 토요일 피드백 모임과, 통독사가 통독하는 내내 중보 기도하는 것과, 통독기간 전 새벽기도 후 리허설을 하기로 약속하고 은혜로운 사명주심을 감사하며 헤어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새벽예배인지라 통독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받는 것은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먼저 통독부분을 정독한 다음 내용과약을 하고 빠른 속도와 내용이 성도들에게 잘 인지될 수 있도록 띄어 읽기를 체크해 가면서 10회가 넘도록 반복연습하고 유독 꼬이는 부분은 몇 번이고 유연하게 될 때까지 반복 연습하니 겨우 20분 이내로 시간이 쏠려 졌다.

그런데 복병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기침이 문제였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을 간질거리며 나오는 기침을 어떻게 참으며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목사님께 의논을 한 결과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기침소리로 인하여 성도님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더 크게 가지면서 통독일정은 시작이 되었다.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살아계신 지존자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며,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인 만수가 있는 곳. 한 점 흠 없는 어린양만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자리. 주님 지성소에서 이렇게 흠 많고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기에 성경통독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로서 감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나니요.

떨림과 두려움과 감격함과 가슴 벅침이 교차하여 감사의 눈물이 멈출 줄 모릅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말갈계 사하시고 이 땅을 회복케 하시며, 이 땅의 죄악을 이겨 낼 수 있으며,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치욕의 십자가를 죄 많은 나 대신 저 주심이며, 감사, 감사하오며 통독

하기 전에 공홀과 자비와 능력의 주 보좌 앞에 작은 아기가 되어 무릎 꿇어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사순절기 시작부터 고생하고 있는 이 기침이 통독하는 시간만이라도 제발 멈추게 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덮인바 되어 나는 없고 오직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을 사모하여 오신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빠짐없이 깊은은혜를 주시옵소서. 통독하는 저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교회 이 성소에서 상한심령은 위로받고 아픈 자는 고침을 받고 포로 된 자와 억눌린 자는 자유를, 눈 먼 자는 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정결하고 맑고 깨끗한 나로 가꾸어 주의 성소의 산 제물로 올려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능력 힘입어 통독하러 나아가오니 제 손을 꼭 잡아주시옵소서.

기침을 참으며 통독하느라 진땀이 흐른 몸으로 기도하는 중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에 가슴에서 뜨거움이 솟아올라옵니다.

'사순절기간 목을 사용해야 하는 내가 심한 기침으로 인하여 이토록 마음을 졸이며 힘겨워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맘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겐세마네의 기도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고 도려 내는듯한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통독 내내 목을 간질거리리는 기침을 참으며 조마조마 마음 졸이며 긴장하는 것도 이토록 힘겹고 두려운데 죽음을 앞에 둔 주님의 심정이야 어떠했을까요.

'내 딸아 이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나의 아픔에 온전히 동참하지 않으려나?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구나'

'통독시간 내내 너를 감싸고 기도하는 나를 힘입어 기침할까 두려워말고 담대히 내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렴'

주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 기침이 그 어떤 약으로도 낫지 않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십자가에 달리실 성 금요일 바로 그 날의 통독을 위한 준비였군요. 어찌 이 못난 저를 택하여 그 아픔을 나누려고 하셨는지요. 온전히 주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나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감사의 눈물이 내 평생 멈추지 않기를, 이 비천한 여종에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 주신 주님이시여!

내 평생 주님의 흔적과 주님의 형상을 지닌 주님의 귀한 딸이길 애쓰리이다.

내 평생 오직 주만 알며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애쓰리이다.

내 평생 하늘소망 가득 품고 주의 언약 지키며 살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주의 포커스 - 임마누엘 찬양대 권덕원 지휘자



본교회에 예배중 행복한 순간은 언제 4부 예배가 있다는 사실이다. 먼 곳에 출장을 가거나 지난밤 무리한 일과로 피로가 풀리지 않아 늦잠을 자다가 생각나 허겁지겁 참석한 예배가

4부 일 때는 입가에 스스로 머무는 미소를 지을 수가 없다. 하나는 주일을 성수했다는 미소요, 또 하나는 국악장단에 엉덩이가 들쭉들쭉이는 신명의 미소이다. 이 기쁨을 제공하는 주인공은 바로 지휘자 안덕원 집사 때문이다.

안집사는 4부 찬양대원들로부터 <행복제조기>라는 애칭을 얻고 있다. 그는 서울대에서 국악 작곡을 전공했으며, 일리노이대 음대에서 음악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 국악 교육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국악 찬양곡, 동요를 비롯하여 많은 국악곡을 작곡했으며, 국악교육론 등 다수의 저작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권덕원 집사는 가끔 국악 찬양곡을 선곡한다. 국악하면 궁중음악의 장엄하면서도 다소 지루한 곡조도 있지만 절로 흥이 나는 세마치장단 등과 같은 흥겨운 장단이 도입된 곡들은 다윗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국악에는 부드러운 유머가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신앙이 깊어서일까? 권집사는 유머가 많다. 찬양대원들이 연습중 실수할 때도 오히려, 위로하고,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찬양대에는 예수님 팬클럽 아래에 지휘자 팬클럽이 있다.

찬양대원들이 음악능력이나,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곡 가사의 내용과, 신앙적으로 찬양대를 이끄는 지휘자의 능력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4부 찬양대원들에 대한 찬사와 회생정신이다. 주님이 주신 주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가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여가일정을 잡을 수 없다. 가장 황금시간인 13시 30분에서 14시 30분에 하나님께 찬양을 규칙적으로 드리는데, 고작해야 아이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신심을 쓰는 수밖에.

전화 상담팀을 찾아서 - 같이 걷는 인생길



인생길 가노라면 누구나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든 길 동반자가 있다면 조금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 동행하며 말벗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되면 따뜻한 우

리 손을 잡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힘내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 어깨에 기대십시오. 주님의 교회 전화상담 사역팀을 소개합니다. 전화매체를 활용하며 피상담자의 문제를 주님 말씀 안에서 같이 고민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서입니다.

기독교 상담 2급 자격증 및 동등한 자격을 가진 20명의 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면담 상담도 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으로 연계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분노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익명성

을 지키면서 대면상담에서 밝히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대화를 통하여 풀어나가고 있으며 월평균 30여건의 상담을 통하여 신앙상담은 물론 가정의 갈등문제 (이혼, 폭력 등) 사회생활의 부적응, 진학 및 취직상담 등 다양한 세상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과 아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조정현 목사님(목회상담학 전공)을 모시고 한층 심도있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자체교육으로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웃고 우는 인생길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따뜻한 가슴 하나 간직하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말씀으로 다가가

섬김의 자세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길

따르겠습니다.

<팀장 배정선 집사>

믿음의 어머니들 —학원선교팀 기도의 어머니들과 사랑의 어머니들을 찾아서—



4월 6일 (화) 정신여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입니다. 아이들 보는 마음, 마음이 '맑.음.' 이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가슴에 예쁜 꽃 한송이 심었습니다. 부활 계란을 삶아 믿음의 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수줍어하며 어색해 하며 탁자위에 놓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가져가는 모습에서 작은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지난 밤 계란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다해 삶고 예쁘게 포장해서 전해 주고 가신 어머니님 기도모임의 손길 손길들 우리 딸들이 잊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 나누어 주는 손길, 그 마음이 사랑이려니.. 정신여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의 창구. 여중고 입학 시 성경책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일로 시작하며 학기 초 두 번 학원 사역 세미나를 통해 박혜성 목사의 지도로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중 팀은 사랑 어머니 이름으로 50여 명이 헌신하고 있고, 여중학교 인성 수업시간에 들어가 학생들의 성장 과정 중 가장 기뻐던 일과 슬펐던 일, 갈등, 현재의 고민 등을 이야기하게 한 후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본

인도 이해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 결신 예배 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소개하고 결신 기도까지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 어머니들은 전도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을 주일학교 중등부에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 찬양, 기도,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고등부 팀은 기도 어머니 이름으로 80여 명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과 일상의 스트레스 등을 위로하고 년 중 학생들과 기도 어머니로 관계를 맺은 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돌봅니다. 또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 진로 상담도 나누며 교회 반가운 학교로 연결 시켜 학생들에게 현실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딸들 선교의 첫발 정신의 딸들에게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을 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드리며 아이들을 만난답니다. (이은영)



주님의교회 찬양대 연합수련회를 마치며



지난 4월 10일 토요일 주님의교회 찬양대 연합수련회가 (호산나, 시온, 샬롬, 임마누엘, 할렐루야, 남성찬양대, 주오 챔버오케스트라) 찬양대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초청강연, 달란트, 성극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쳤다.

특히 이번 찬양대 연합수련회는 2003년 이후 오랜만에 열린 뜻 깊은 행사여서 코리아남성합창단을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코리아남성합창단은 1993년 3월 기독교 선교와 사회봉사 그리고 기독교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목회자, 음악인, 교사, 사업가, 의사,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

이 모여 지난 10년 간 국내외에서 다수공연과 열 번의 정기공연을 거쳐 지금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성찬양대로 성장하였다

저녁 7시부터 한 시간 동안의 공연은 코리아 남성합창단과 함께 주님의교회 이혜정집사(소프라노) 성기훈집사(바라톤)의 독창을 곁들인 합창의 진면목과 함께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감동을 안겨 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샬롬찬양대 총무 강홍구집사〉



우리가 어떤 책을 선택하여 읽게 되는 경로는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신문의 서평을 보고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광고나 선물을 통해 책과 만나게 될 때도 있으며, 먼저 읽은 이들의 추천을 받아 읽게 되기도 합니다. 또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눈에 띈 책을 대충 훑어보다 사서 읽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그림 에세이 <편지가 왔어요>라는 책을 바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 'SELAH'에 대한 글을 쓸 때 더 많은 자료를 구하고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몇 권의 책을 함께 사게 되었습니다. 책의 표지와 제목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 잠깐 들춰 보다가 내려 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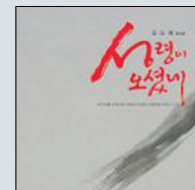
았는데, 왠지 아쉬운 생각이 들어 계산할 때 다시 선택하게 된 책입니다. 처음 들어 본 작가였으니, 그 때 안 샀더라면 어쩌면 영영 이 책을 못 만났을 수도 있었겠죠.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이혜경 작가가 글을 쓰고 그림도 그린 이 책은, 각 페이지마다 영감 넘치는 짧은 글과 화사하고 다양한 그림이 한 쌍을 이루어 책 한 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그림들은, 그림에 대해 전혀 식견이 없는 저에게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의 글들을 통해 저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과 그림 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기쁨의 편지가 되어 제 마음 구석구석을 행복으로 물들여 주었습니다.

그의 글과 그림을 읽고 보노라면 작가에게 살짝 샘이 나기도 합니다. 한 사람에게 재능을 몰아주신 하나님께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구요. 그렇지만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지닌 분의 작품을 통해 제 마음이 행복해 진 걸 보면, 하나님께 섭섭해 하기보다는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나 아까운 이 사랑스러운 책 <편지가 왔어요>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하듯이, 이 책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얻은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께도 듬뿍 전해지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박윤정 기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즐겁고 기쁜 때도 있지만, 외롭고 슬프고 허무한 순간 역시 적잖이 존재합니다. 기쁠 때 들어도 좋지만, 힘들고 허무한 시간에 하늘의 위로를

전해 준 소중한 음반, 찬양 사역자 김도현의 2집 <성령이 오셨네>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도현 형제는 작곡, 작사, 노래, 연주실력 모두가 출중한 전문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앨범은 그가 전에 발표했던 세련되고 화려한 1집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소박한 느낌이 드는 동시에, 조금은 투박하고 원색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교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요14:18)"는 말씀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기에, 김도현 형제의 빛나는 재능이 돋보이기 보다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체감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 나오게 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앨범이 나온 지 벌써 4년이 되었지만, 타이틀곡 "성령이 오셨네"는 ccm 인기 순위에서 몇 년째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곡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 들었을 때보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와 위로를 깨닫게 되는 참으로 은혜 가득한 앨범입니다.

이 음반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박윤정 기자)